



3435 WILSHIRE BOULEVARD, EQUITABLE BUILDING, SUITE 1750,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3-1127 • JamesCha@CPA.com • TaxWise-CPA.com

[Newsletter]

“IRS’ New Initiative alerts taxpayers for Audit Increase & Collection Enforcement”

Dear Valued Client,

The decrease in audit rate, as shown in the media earlier, was based on prior years’ statistics.

In the upcoming years including this tax season, all taxpayers need to be alerted with the recently heightened increase in the IRS audit risk.

The last 12 months were filled with the IRS changes in addition to the massive tax reform.

IRS is in the midst of a hiring spree

The new IRS hiring spree means that there may be more audits and investigations of noncompliant taxpayers.

New IRS Commissioner Charles Chuck Rettig has already hired over 1,000 new Revenue Officers and Revenue Agents with another 1,000 planned for 2020. Most of the new hires are enforcement and collection personnel, including criminal investigation personnel.

Taxpayers should be aware of the IRS’ new data analytics priorities, especially concerning clients with possible tax risks and vulnerabilities.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a decade, the IRS recently got appropriated \$362 million budget increase from Congress, the first increase in nearly a decade! The \$285 million of this is earmarked for enforcement.

The IRS issued 639,000 levies in 2018 (the latest year that stats are available). This is the first increase in eight years!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A levy is the physical seizure of a taxpayer’s income and/or assets. Levies have increased nearly 10% over the prior period. The IRS now also has the mandate to file federal tax liens when a taxpayer owes \$10,000 or more.

The 2020 Perfect Storm

In 2020, taxpayers will experience a perfect storm of happenings. The IRS has resolved to step-up enforced collection actions significantly. They are promising more audits, liens, and levies.

They will commence a program of sweeps where IRS will travel to under-served areas with teams of auditors who may schedule multiple examinations in the area or pop in unannounced. The IRS is determined to accelerate enforcement actions for unremitted payroll taxes, and they are committed to prosecute more tax fraud cases based on referrals from their civil divisions like Small Business/Self-Employed Division.

New IRS Commission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mmissioner is a former practicing tax attorney who actively and aggressively defended (and cleaned up) taxpayers in complex tax controversy matters. He is about to ramp up the enforcement machine-like practitioners have not seen in many years.

Commissioner Rettig stated that he is, “Passionate about making sure we enforce tax laws. A robust enforcement effort assures compliant taxpayers that those who fail to comply risk the consequences of such non-compliance.”

In final words, **tax saving strategies and deductions should be supported through proper tax planning and document substantiation with qualified tax professionals or CPAs.**

Sincerely,

James M. Cha, CPA, CTRS
James M. Cha, CPA & Company, A Professional Corporation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경제일반 2020-01-16

IRS 올해 세금보고 감사 '깐깐하게'

- ▶ 10 년만에 처음 예산 증액, 인력 대거 충원
- ▶ '타겟 감사' 소문까지...미납세금 징수도 박차, “감사를 떨어졌다 방심하다간 큰 코 다쳐”

올해 세금보고는 다른 어느 해 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국세청(IRS)이 예산 확보와 함께 감사 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세무 감사 강도가 예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5 일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연방국세청(IRS)이 지난해 9 월 찰스 척 레티그 커미셔너를 새 수장으로 맞이하면서 대대적인 개혁과 감사 합리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IRS 의 감사 인력 충원이다. IRS 의 자료에 따르면 IRS 가 연방의회로부터 확보한 2020 년 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3 억 6,200 만달러다. 이는 지난 10 년래 처음으로 증액된 예산이다.

IRS 는 증액된 예산으로 가장 먼저 감사 인력 충원에 나섰다. 지난해 1 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충원한데 이어 5,000 명을 추가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세금 징수 관련 인원을 지난해 4,000 명 확보해 세금 추징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예산부족으로 2 만명 이하로 직원 수가 줄어들면서 감사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 세금보고 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던 전례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임스 차 CPA 는 "IRS 가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동안 비판받았던 감사 인력 보강과 감사 시스템 현대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인식 변화를 위해 강도 높은 세무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IRS 가 감사 인력 충원에 나선 것을 두고 한인 CPA 들 사이에서는 '타겟' 세금보고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간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감사가 부실했던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IRS 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먼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다. 규모가 작다 보니 수입을 줄여 세금 납부액을 줄이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IRS 자료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 수입 보고 오류율은 56%에 달한다.

가상화폐 보유자도 올해 세금보고에서 강도 높은 감사의 대상이다. 한번도 감사 대상이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올해 첫 감사라 철저한 감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원들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주들도 올해 감사 대상에서 피할 수 없다. 감사 인력 부족으로 2010년에서 2018년까지 47%나 감사율이 떨어졌던 것을 올해 감사에서는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몇 년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든지 미납 세금이 많은 경우도 징수 인력 충원으로 최대한 찾아내 세금 징수를 할 예정이다.

자녀특별공제와 같은 세금공제 혜택도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 부적격자의 세금공제 혜택을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 법인'의 제임스 차 대표는 "IRS가 오랜 동안 비효율성과 감사 시스템의 낙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올해 세금보고 감사는 물론 세금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과거 세금보고 감사율이 2배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문 CPA와 세금보고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